

## ■ 2026년 베니스비엔날레 제61회 국제미술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 총평

[2026년 베니스비엔날레 제61회 국제미술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회의 개요]

### ○ 1차 회의(서류심사)

- 회의일시 : 2025. 4. 7(월) 오후 7시~9시 (KST)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및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참석 선정위원(가나다순) : 김영순, 김해주, 마시밀리아노 지오니(Massimiliano Gioni), 야콥 파브리시우스(Jacob Fabricius), 우정아, 정서영, 정현 (7인)

### ○ 2차 회의(전시계획안 발표(PT) 및 인터뷰 심사)

- 회의일시 : 2025. 4. 21(월) 오후 7시 ~ 11시 (KST)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및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참석 선정위원(가나다순) : 김영순, 김해주, 야콥 파브리시우스(Jacob Fabricius), 우정아, 정서영, 정현 (6인)

### 1차 선정회의(서류 심사) (2025. 4. 7)

2026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을 위한 1차 심의 회의는 2025년 4월 7일 1차 줌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심의위원은 미리 발송된 총 18건의 지원자(팀)가 제출한 기획안과 포트폴리오 및 지원서를 사전 검토한 뒤, 2차 인터뷰 심사 후보군을 추천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네 개의 기획안을 인터뷰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지원자의 수가 늘어난 만큼 순위에 속하지 못한 기획안 중에서도 동시대에 관한 고민과 한국 시각예술의 좌표를 되묻는 알찬 제안이 적지 않았으나, 베니스비엔날레라는 위상, 예산, 낯선 환경을 비롯하여 전시 구현을 위한 현실적인 입장도 평가에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2차 심사에 선정된 4인(팀)의 기획 방향과 큐레토리얼의 방식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활용 계획에 있어서 그 편차가 매우 컸습니다. 한국관을 몰입형 미디어 공간으로 구성하는 계획부터 한국관과 독일관을 이어 개인의 (불가항력적) 이주와 국가의 관계를 재배치하려는 기획, 한국관의 안과 밖을 서로 다른 개념과 성질로 변화시켜 공간을 감각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 게이 담론을 개념적으로 다루며 아시아적 퀴어 실천의 대안적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시도 등 안정적인 전시기획부터 실험적인 기획에 이르는 차별성으로 2차 심사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다만 실험성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예산, 일정, 홍보 등 전시 기반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자주 대두되었습니다.

### 2차 선정회의(전시계획안 발표 및 인터뷰 심사) (2025. 4.21.)

2차 심의에 참여한 네 명의 지원자(팀)는 각 20분 발표와 15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 사회의 엄격하고도 이분법적인 이성애중심주의의 관습을 비판하는 퀴어 담론에 관한 연대기 방식의 전시로 매우 안정적인 전시로 평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한인 독일입양인 작가의 정체성과 기억에서 비롯된

기억을 통해 한국관과 독일관을 연결하는 상상의 지리학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세계화 이후 더욱 공고해진 국가주의를 허문다는 시도로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이주로 인한 소유, 소외, 경계의 문제를 몸, 땅, 데이터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온도라는 감각을 다룬 전시로, 역사 너머의 초국가적인 세계와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전시 역시 사유의 크기, 서사의 유려함, 기획의 세밀함으로 심의위원의 높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빛나가 제안한 <해방 공간 요새와 등지>라는 기획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바탕으로 일상과 미디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체의 분열, 보수화된 사회, 해법이 나타나지 않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특히 젊은 여성 세대들의 현실 정치 참여로 대변된 소프트파워의 활약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최빛나가 초대된 두 명의 작가 최고은과 노혜리는 동시대의 주변부에서 탈락한 물질, 오브제 등을 활용해 다른 차원의 시공간을 제안합니다. 그들은 한국관의 외부와 내부를 변형하거나 재조립하여 기존의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이곳을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제안합니다. 이처럼 <해방 공간 요새와 등지(가제)>는 기성의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관을 전혀 다른 감각으로 접근한다는 참신한 제안을 통해 2026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 심의 결과

네 지원자의 발표는 각 주제가 가진 무게만큼이나 심도가 깊었고 전시라는 형식이 아닌 이를 하나의 방법으로 삼으려는 큐레토리얼의 접근도 유려했습니다. 다만 이번 심의에서는 이와 같은 유려함이 지나치게 안정적인 방식으로 정형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되었습니다. 이는 내부의 관점에서 한국의 상황을 몸으로 경험하자는 최빛나의 기획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최빛나의 기획안은 다소 투박해 보일 수도 있으나, 안전한 기획 대신 현재의 쟁점을 감각과 태도의 방식으로 풀어냄으로써 실험성이 강한 큐레토리얼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여 작가인 최고은은 폐기된 기계 사물들을 활용하여 비물질화된 시대에서 물질의 가능성을 탐구하여 최근 국내외 미술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혜리는 신체의 움직임, 사물, 언어 사이의 미시적인 교차와 어긋남을 통해 감각을 매개로 한 임의적이고 대안적인 공간의 경험을 제안합니다. 그들은 신체와 물질의 잠재성을 알레고리 삼아 디지털 세계의 몰입이 아닌 현재와 공명하는 탈학습의 작업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선정위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예산의 적절한 분배, 베니스의 불안정한 기후와 전시 기간을 고려한 작품 설치, 홍보에 관한 준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선정위원들은 최빛나의 실험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신체, 공간, 물질의 감각적 전환을 통해 동시대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6년 베니스비엔날레 제61회 국제미술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위원회 위원 일동

## **General Comments on the selection of the Curator for the Korean Pavilion at the 61st Venice Biennale**

### **1st meeting (document screening) – Apr. 7, 2025**

The first meeting to select the 61st Venice Biennale Korean Pavilion Artistic Director was held as a videoconference (via Zoom) on Apr. 7, 2025. Each judge pre-screened proposals, portfolios, and applications submitted in advance by 18 applicants/teams after which they recommended a pool of candidates for the second screening interview session. Among the candidates, four proposals that received the most recommendations were selected to be eligible for the interview.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applicants, various proposals were dismissed despite their enriching questions into contemporary issues and the landscapes of Korean visual art, however, realistic views in implementing the exhibitions including the status, budget, and unfamiliar environment of the Venice Biennale were taken into account.

In particular, the four applicants/teams selected for the second screening demonstrated a vast variance in terms of their directions and curatorial methods in utilizing the Venice Biennale Korean Pavilion. While one contestant attempted to formulate an immersive media space in the pavilion, another devised a plan to connect the Korean Pavilion with the German Pavilion to rearr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s and people's inevitable migration (i.e., diaspora). One applicant had the idea to transform the space from the aspect of senses, shifting the Korean Pavilion's interior and exterior to completely different themes and features. Another candidate delved into the concept of gay discourse, trying to demonstrate an alternative for the queer movement in Asia. These proposals ranged from stable to experimental, further heightening the prospects for second screening. However, there were concerns for experimental proposals regarding their fundamental exhibition aspects (e.g., budget, schedule, promotion), as such displays face challenges in predictability.

### **2nd meeting (proposal presentation & interview) – Apr. 21, 2025**

The four applicants/teams selected for the second screening had twenty minutes to present and fifteen minutes to participate in a follow-up Q&A session. The first presentation dealt with an exhibition that tells a chronicle of queer discourses, criticizing Korean society's rigorous, either/or heteronormativity. The second presentation proposed an imaginative geographical take on connecting the Korean Pavilion with the German Pavilion by tapping into the artist's identity and memories of a Korean adopted into a German family. The applicant received praise for the impressive display, attempting to dismantle the nationalism that has grown ever stronger since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third presentation's theme delved into the concept of temperature, drawing ideas from the body, earth, and data grounded on issues of ownership, isolation, and boundaries due to immigration. Through this display, the candidate attempted to usher in an age of a transnational world beyond the bounds of history. This proposal also gained the judges' attention thanks to its scale of thought, elegant storytelling, and meticulous design. Lastly, Binna Choi's proposal *Liberation Space. Fortress / Nest* (working title) set its stage on the recent incidents in Korea, capturing the feats of soft power articulated by young women's participation in real-life politics despite the disintegration of communities, society taking steps to the right, and the social apprehension without any solutions in sight. Goeun Choi and Hyeree Ro—artists invited by Binna Choi—proposed space and time from a whole new dimension using things and objects that have been erased from

the fringes of our times. They reconfigure or reassemble both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Korean Pavilion to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exhibition formula and introduce a space filled with new experience. As such, the committee selected *Liberation Space. Fortress / Nest (working title)* as the exhibition for the 61st Venice Biennale Korean Pavilion, praising the novelty of the proposal that was considered to approach the pavilion with an entirely different sensibility, breaking away from conventional methods.

### **Screening results**

The presentations from the four applicants were displayed in-depth equal to the profoundness of their themes—the curatorials' approaches were also elegant in utilizing exhibitions as a means rather than a format. However, some judges showed concerns that such elegance may be standardized in an overly stable way. This notion led internal deliberations to shed a positive light on Binna Choi's proposal on experiencing Korea's circumstances with bodily senses. Despite the ruggedness of the proposal, Choi's proposal garnered praise for choosing a highly experimental curatorial instead of a safe design by unraveling current issues from the aspect of senses and attitudes. Gonne Choi, a participating artist of Binna Choi's exhibition, utilizes discarded machine object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materials in a de-materialized age, drawing immense attention from the art scene in and out of Korea. Hyeree Ro, another participating artist, proposes arbitrary, yet alternative spatial experience using senses as the medium through microscopic intersections and contradictions between body movements, objects, and languages. The judges praised the artists for employing the potential of the human body and object as an allegory, spreading the work of unlearning that resonates with current times rather than an immersion in the digital world. However, some judges advised that preparations must be made for art installations, promotional activities, and lack of budget considering the unstable climate in Venice and exhibition period. The judges expect Binna Choi's experimental project to showcase the soft power of the current times of Korea by converting the human body, space, and materials from the aspect of senses.